

# 보이는 대상 너머에 존재하는 또 다른 감각

예술공간 이아 선정작가전 문창배 작품전 8월 1일까지 메스 이용 파도 작업 등 신작 전시 연계 '작가와 탐방' 등



문창배의 '시간-이미지' (캔버스에 아크릴, 외과용 메스, 2021)

제주 문창배 작가가 몽돌에서 파도로 대상을 확장하며 극사실주의 기법을 이용해 보이는 대상 너머의 감각을 일깨우는 신작들로 또 한번 작품전을 열고 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도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예술공간 이아의 2021 선정작가전이다.

지난 8월 이아 갤러리에서 막이 오른 이번 전시는 '무심한 시선, 그 너머의 감각'이란 제목을 달았다. 지난 3월 18~4월 16일 한라일보 갤러리 이디 초대전을 통해 4년 만에 개인전을 가지며 작업의 변화를 보여주는 '시간-이미지' 연작 중 신작을 공개했던 문 작가는 당시 출품하지 못한 작품을 중심으로 60여 점을 준비했다.

비했다.

문 작가는 이번에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을 쓰고 붓 대신 수술용 메스를 이용한 스크래치 기법으로 제작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붓질보다 한층 고된 작업을 거쳐 탄생한 화면 안엔 검은 바위를 향해 파도가 세차게 밀려든다. 단색조의 작품처럼 보이지만 흑과 백 사이에서 무수한 색감을 만나게 된다.

이 같은 파도 작품과 더불어 예술가의 삶을 주제로 한 신발 시리즈,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지로 표현한 인물 시리즈와 동물, 나무 소재 작품도 나왔다. 문 작가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몽돌 시리즈도 함께 전시했다.

이경은 미술기획자는 이번 전시에 부친 평문에서 "언뜻 사진을 복제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갔을

때 수없이 그려진 선들의 조화임을 발견한 순간 단순한 시각각을 뛰어넘는 촉각적 자극을 경험하게 한다"며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을 넘어 경외감에 도달하는 것, 사진을 적극적으로 차용하면서도 결국 이것은 사진이 아니며 인간의 감각은 그것을 초월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 문창배 작가의 작업 방식"이라고 했다.

예술공간 이아는 전시와 연계해 6월 중 '작품의 풍경길을 작가와 동행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림 속 바닷가를 작가와 동행해 둘러보며 창작 배경 등을 만나도록 기획됐다. 7월 중에는 '작가와 함께하는 서양화를 바라보는 방법 배우기'가 예정됐다. 상세한 일정은 추후 예술공간 이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전시는 8월 1일까지 이어진다. 갤러리 개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문을 닫는다. 문의 800-9333.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즈녀춤·물허벅춤 공연 보고 강연 듣고

이연심의 '제주의 춤이여' 문화공간서 춤 자료 전시 렉처 콘서트도 3회 진행



이연심 무용가가 물허벅춤을 추고 있다.

제주도 향토무형유산 제8호 제주창작무(즈녀춤·물허벅춤) 인정자인 서귀포의 이연심 무용가가 5월 한 달 동안 제주춤을 알리는 무대를 이어간다. '제주의 춤이여'란 이름으로 펼치는 전시와 렉처 콘서트다.

'제주의 춤이여'는 이연심 무용가의 춤 자료를 선보이는 전시, 강의와 공연이 함께하는 렉처 콘서트로 꾸민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즘녀춤과 물허벅춤 등 제주해녀문화를 담은 춤을 통해 제주 정체성을 탐색하고 춤을 매개로 제주 문화를 새롭게 바라보는 자리로 기획됐다.

서귀포에총 회장을 지낸 이연심 무용가는 지난 50여 년 제주춤의 연혁을 몸의 움직임으로 써 내려온 토박이 춤꾼이다. 1975년 한국국악협회 무용분과 제주 1호 회원으로 1982년 서귀포 최초 무용학원 개원, 1997년 한국무용협회 서귀포지부 발족과 서귀포민속예술단 설립, 1999년 서귀포어린이무용단 창단 등을 이끌었다.

이번 행사는 서귀포 지역의 세 군데 문화 공간에서 진행된다. 5월 3~9일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문화예술공간 문막을 시작으로 5월 10~16일 남원읍 위미리 치유예술공간 남빌레, 5월 17~23일 표선면 표선리 인문예술공간 환이정에서 만날 수 있다. 해당 공간에서 매일 춤 자료 전시가 이뤄지고 마지막 일정으로 렉처 콘서트가 열린다.

남은 기간 렉처 콘서트는 16일 오후 4시 남빌레, 22일 오후 4시 환이정으로 잡혔다. 강연과 시연에는 이연심 무용가와 이연심제주민속춤보존회의 김은희 이사, 이순심 회원이 참여한다. 사전 예약 문의 010-5678-5927. 전선희기자

## '이건희컬렉션' 이중섭 작품만 104점

국립현대미술관 세부 공개 이중섭 회화 19점 등 포함 대표작 '황소' '흰소' 기증 이중섭미술관 조성 배경 된 피난기 '... 피난민과 첫눈'도

갈, 달리, 피카소 등 세계적인 거장들의 대표작으로 구성됐다. 국립현대미술관은 근현대미술사를 망라한 이번 기증으로 소장품 1만점 시대를 맞았다.

이들 기증품은 '이건희컬렉션'이란 이름 아래 오는 8월 서울관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과천, 청주 등에서 특별 전시, 상설 전시, 보이는 수장고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2022년에는 지역의 협력망 미술관과 연계한 특별 순회전을 개최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미술자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1930년 이전에 태어난 '근대작가'의 범주에 들어가는 이들의 작품 수는 약 860점으로 전체 기증품의 58% 정도에 이른다. 작가별 작품 수는 유영국(187점)에 이어 이중섭의 작품이 회화 19점, 염서화 43점, 은지화 27점 등 104점으로 두 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내년 3월 '이건희컬렉션 3부' 전시로 '이중섭 특별전'을 계획 중인 국



이중섭의 '바닷가의 추억-피난민과 첫눈' (1950년대).

사진=국립현대미술관 제공

립현대미술관은 이날 이중섭 주요 작품도 소개했다. 1950년대 '황소', 1953~54년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흰소', 1950년대 '바닷가의 추억-피난민과 첫눈', 1950년대 은지화 '묵인 사람들', 1941년 6월 14일 염서화다.

'황소'는 이중섭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그림으로 1954년 통영 시절 제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흰소'는 현존하는 것으로 알려진 약 5점의 '흰소' 중에서 하나다. 이중섭이 한국전쟁 중 피난지에서 맞이한 첫

눈의 인상을 그린 '바닷가의 추억-피난민과 첫눈'은 제주 배경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중섭은 가족을 데리고 원산폭격을 피해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남하했다고 전해진다. 거처를 거쳐 제주도에 왔는데 첫눈이 내렸고 거처할 곳을 찾지 못해 외양간 신세를 진 적도 있다. 이 그림엔 평평 내리는 눈 날씨 속에 거리로 나앉은 피난민들이 새, 물고기 등과 어울려 나뭇굴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전선희기자

## 스무 살 제주문예재단 과제와 방향은

이달 14일 상반기 랜선 포럼 코로나 문화생태계 등 논의 청년예술가 프로젝트 제안도

창립 20주년을 맞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문예재단)이 이달 14일 오후 2시부터 산지천갤러리에서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로 '제주문화예술선 상반기 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은 '스무 살의 꿈, 제주 문화예술의 가치를 더하다'를 20주년 표어로 내건 문예재단이 제주 문화예술계와 문예재단이 나아가야 할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특별 세션으로 '위드 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를 꿈꾸다'란 주제 아래 발제와 토론이 마련된다. 이선화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김선영 제주에총 회장, 이중형 제주민예총 이사장이 발제한다. 토론은 김수열 한국작가회

의 부이사장, 강태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장이 맡는다.

세션1은 '스무 살, 새로운 만남과 모험을 꿈꾸다' 주제로 문예재단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를 토론한다. 김석범 전 제주문화예술재단 전문위원,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발제하고 강현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회장, 추미경 문화다음 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세션2는 '제주청년들, 슬기로운 문화예술을 꿈꾸다' 주제로 제주에서 활동하는 청년예술가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네트워킹하는 자리다. 총 10명의 청년예술가들이 이승택 이사장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대 프로그램으로 청년예술가들의 축하 공연 등이 예정됐다. 사전 온라인 신청 등록을 하고 실시간 방송에서 응원 댓글을 남긴 참여자에게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별이다. 자세한 내용은 문예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선희기자

### 석재부

- 불상전문제작 (제주중문에서)
- 비석→ 직접가공 및 설치
- 석물→ 일절완비
- 돌하루방, 물허벅, 해녀상 일절가공
- 제주 전시장 (중문고등학교앞)
- 납골묘, 평장묘 전문

### 장례부

- 1) 1급 장례지도사 5명 보유
- 2) 장의차량 리무진 및 장의차 7대 보유
- 3) 제주의료원 협력업체
- 4) 서귀포의료원 협력업체
- 5) 24시간 출동 대기
- 6) 장례용품, 도우미
- 7) 매장 및 화장, 이장

**대표 박복현** 010-3698-0402, 010-3693-4333 E-mail. qhrgus4333@hanmail.net

## 중문 석재 장의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1834-5 Tel. 064-738-4333 Fax. 064-738-4336